

아프리카 차드(Chad) 내전의 배경과 전망

□ 정권 전복을 노린 반군의 공격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진 차드

- 2008년 2월 1일, 차드 반군연합이 수도 은자메나(N'Djamena)를 습격, 한때 수도 대부분이 반군 세력에 장악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짐. 2월 5일 현재 정부군이 수도의 통제권을 회복한 상태로 대통령 이드리스 데비(Idriss Deby)는 대통령궁에서 정부군을 지휘 중이며 차드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개령이 내려짐.
- o 수도 은자메나 습격은 최대 반군 조직인 ‘민주화·발전을 위한 연합전선 (UFDD ; United Force for Democracy and Development)’ 을 포함한 3개 반군세력의 연합작전으로, 전 국방부 장관인 마하마트 누리(Mahamat Nouri) 등 다수의 정부인사 또한 반군세력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o 차드 정부와 반군과의 내전 배경에는 2003년부터 시작된 차드 남부 유전 개발 관련 이권 다툼이 있음. 오일머니를 독식하기 위해 2006년 데비 대통령은 3선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과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연장하였고 이는 정부와 반군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o 2007년 10월,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Qaddafi)의 중재로 차드 반군과 정부는 평화중재안에 합의하고 최대반군조직 UFDD의 수장 마하마트 누리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음. 그러나 복잡한 갈등양상으로 인해 근본적 문제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또한 반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반발이 발생해 반군의 수도 공격 사태로 치달음.

□ 향후 중앙아프리카 정세의 중요 전환점이 될 차드 내전

- 금번 사태는 양측이 서로 반군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여 온 차드 및 수단 정부의 대결이 표면화 된 것으로 향후 중앙아프리카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차드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쿠데타 및 내전이 끊이지 않았음. 특히, 대통령 이드리스 데비의 자가와(Zaghawa) 부족과 그 외 부족간의 갈등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이웃국가 수단과 프랑스의 대립 등이 차드 혼란의 원인을 제공.
- 특히 차드는 수단 다르푸르 사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함. 수단의 다르푸르와 인접한 차드의 동부지역은 수단 다르푸르 난민과 같은 자가와 종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대통령 데비의 출신지역이기도 함. 따라서 차드 정부는 수단 정부의 암묵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잔자위드(Janjaweed) 민병대에 대항하는 다르푸르 반군을 지원해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단 정부는 차드 반군을 지원해왔음.
- 데비 대통령은 수단의 지원 하에 정권을 획득하는 등 집권 초반에는 수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으나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입장차이 및 이에 대한 불만으로 양 국가는 2006년 국교 단절을 선언.
- 최근 차드 정부가 수단 접경지역의 요충지인 아드레 지역에 다르푸르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UN 및 EU 평화유지군의 주둔을 허락함에 따라 수단 민병대가 다르푸르 반군을 진압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수단과 차드와의 갈등이 극에 달함. 수단은 이번 차드 반군의 수도 공격을 적극 지원했고 차드 정부는 수단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내비침.
- 따라서 앞으로 수단 다르푸르 사태의 향방은 금번 사태의 진행 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특히 차드 반군의 승리 시 UN 및 EU 평화유지군 파견이 어렵게 되고 이에 힘을 얻은 수단 정부 및 수단 잔자위드 민병대는 다르푸르 반군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취해 다르푸르 난민에 대한 극단적 인종청소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강대국 간 치열한 주도권 다툼 예상

- 금과 우라늄 등의 광물자원을 비롯하여 2006년 대규모 유전개발의 성공으로 차드는 에너지 이권을 노리는 여러 강대국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
- 프랑스는 차드의 독립 후에도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 시대부터 주둔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과거 차드의 정권 교체에 관여하고 현재에도 차드 반군의 현황을 파악해 정부군에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데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 그러나 프랑스는 데비 대통령이 1999년 프랑스의 엘프사를 제쳐두고 미국의 엑슨사에 차드 동남부에 위치한 도바 분지(Doba Basin)의 유전개발권을 넘겨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음. 아프리카 영토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권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는 사건으로 프랑스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줌.
- 최근 프랑스는 차드 내 자국의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UN을 설득, 차드 동부에 UN 평화유지군 및 프랑스 병사로 구성된 EU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려 함. 그러나 현재 프랑스는 차드 내전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음. 이는 현 사르코지 대통령이 아프리카 내 친 프랑스 정부에 대한 과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정하기로 한데서 기인한다는 분석임.
- 프랑스 외에도 최근 중국은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차드 내 유전 및 산업시설에 대한 지분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임. 결국 최근 차드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데비 대통령을 비롯한 차드 정권과의 긴밀한 협력에서 나온 것을 볼 때 이번 차드 내전은 향후 어느 나라가 차드 남부의 유전지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전망이다.

문의 : 전문연구원 정재현(☎3779-6651)
jhjung@koreaexim.go.kr